

개정운전면허시험

거리는 자동차로 가득차 꼼짝하지 않지만, 집은 없어도 자가용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대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필수자격증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다음 코스시험과 주행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운전면허시험형식이 대폭 바뀌어 여간 정성과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선 시험 응시자들은 필기시험이라고 불리는 학과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25시간동안 전문학원의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학과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는 다시 25시간이상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을 이수한 후 기능시험을 치르게 된다.

작년까지는 굴절, 곡선, 방향전환 등 코스시험 합격한 다음 교차로, 경사로,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주행시험을 치르고, 여기서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으나 이제는 기존의 코스와 주행시험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치르게 된다.

기능시험장에는 중간에 굴절, 곡선, 방향전환 등 모든 코스가 들어가 있는 시험도로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를 수험생은 한꺼번에 돌아 나와야 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수험생은 6개월 유효기간의 연습면허를 받게 되는데, 새롭게 추가된 도로주행능력시험

을 치르기 전 임시로 받게 되는 임시면허라 생각하면 된다.

연습면허를 취득한 수험생은 운전면허 학원에 관계된 사람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 지난 사람의 감독하에 10시간이상 실제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도로주행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을 혼자 운전할 경우에는 연습면허증이 취소된다.

도로주행연습까지 모두 마치 응시자는 도로주행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 측이 선정한 시내의 특정구간도로로 약 4km를 약 30분 정도 주행하게 된다. 이때 옆자리에 탄 면허시험관으로 부터 운전능력, 교통법규준수사항 등 주행능력을 평가받게 되는데 합격선은 70점이다. 도로주행능력시험에서 70점이 넘었다 할지라도 시험관이 보기에 교통법규준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때 시험관의 부정을 막기 위해 뒷자리에 다음 응시자를 태우도록 되어 있다.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학원의 교육이수시간은 학과25시간, 기능25시간, 외부연수10시간 등 모두 60시간으로 이렇게 까다로운 개정운전면허 시험을 모두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웃음이 있는 마당

위기를 모면한 지혜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이론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자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부탁해 왔다. 박사는 바쁜 와중에도 뿌리치지 않고 이 대학 저 대학을 다니며 강연을 했다.

30회 이상의 강연을 한 어느날, 전속운전기사가 박사에게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

“박사님, 저도 상대성이론에 대한 강연을 30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연일 강연하시느라 피로하실텐데 다음번에는 제가 박사님의 양복을 입고 강연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박사는 무슨생각을 했는지 순순히 그말에 응했다. 다음대학에 도착하기 전에 들은 웃을 바뀐 입었다. 이때부터 박사가 운전을 하고 뒷자석에는 운전기사가 앉았다. 가짜 아인슈타인 박사

의 강연은 훌륭했다. 말 한마디, 표정의 움직임까지도 진짜 박사와 흡사했다. 성공적으로 강연을 마친 가짜 박사는 많은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서 내려오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학식이 높은 것 같은 교수 한 분이 질문을 한 것이다. 운전사 복장을 하고 있으니 나서서 질문에 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단상의 가짜 박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군요, 그 정도는 제 운전사도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를 향해 소리쳤다. “어~여보게, 나와서 이 분의 질문에 대해 어서 설명해 드리게나.”

!?!?!?!?!?!.....